한국가구학회지(Journal of the Korea Furniture Society)
Vol. 28 No. 4 October, 2017, 326-331

가정용 가구의 색채에 관한 소비자 연구

조 숙 경[1], 임 광 순[†,2]

[1]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과, [2]경민대학교 가구인테리어디자인과

A Study on Consumers' Recognition of Home Furniture Colors

Sook-Kyung Cho[1], Kwang-Soon Rim[†,2]

[1]Departmen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02192, Korea
[2]Department of Furniture Interior Design, Kyungmin College, Uijeongbu 11618, Korea

Abstract: The survey of consumers' recognition of home furniture colors was conducted targeting 32 males and 68 females from 20's to 60'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n terms of colors, when they were asked of where was the most important place in a house, the first place they thought of was the color of wallpaper and the second was the color of furniture. The second, in terms of home furniture colors, a sofa was put the most importance on and a living room dresser was the next. The third, they preferred natural wood color as home furniture and the next color was achromatic colors. The forth, the most preferred wood color was a walnut and the next was a ginkgo tree color. The fifth, the most preferred color was white and the next was tertiary colors when they were asked to paint their home furniture. The sixth, 88% participants in the survey responded that home furniture colors would much influence on our lives. In conclusion, most consum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urniture colors and they prefer the use of hardwood for a natural feeling as long as they can afford.

Keywords: *furniture for home use, color, consumer, question investiga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물체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때 형태보다 색채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색상에 쉽게 이끌리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색을 통해 온도, 중량, 강약, 흥분과 진정, 시간의 장단 등을 느낄 수 있다(전 1997). 제품의 색채는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가구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무용 가구분야에서는 관공서나 기업에 가구를 제시할 때 공간 및 가구의 색상을 의도한 콘셉트에 맞추어 제시한다. 따라서 사무용 가구의 색채 연구사례는 있으나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가구는 집안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가구 색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단색에 대한 선호도는 색과 대상에 결합에 대한 판단으로 단색에 대한 선호도를 실물대상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T. W. Whitfield 1990)는 연구결과와 같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색과 사용하고 싶은 가구의 색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가정용 가구는 안방에 놓인 화려한 화각장

2017년 9월 10일 접수; 2017년 10월 16일 수정; 2017년 10월 19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임 광 순 (iiikkksss@naver.com)

을 제외하고 흑색이나 적갈색의 옻칠을 했거나 불에 그을려 기름에 절인 어둡고 침착한 색이 많다(문 2012). 가정용 가구는 다른 용품들보다 부피가 커서 눈에 띄는 색으로 가구를 만들 경우 다른 용품들과의 조화가 어렵거나 쉽게 싫증이 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무난하며,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선호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구의 색상에 관한 선호도 조사의 통계가 없음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을 방문한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소비자는 가정용 가구의 색채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는 가정용 가구의 범위를 살펴보고, 설문지를 통해 가정에서 색채가 중요한 용품은 무엇인지, 색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용 가구는 무엇인지, 가구의 선호하는 색채는 무엇인지, 가정용 가구의 선호하는 목재 색은 어떤 것인지, 가구에 컬러도장을 한다면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지, 가구의 색채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한다.

연구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가구의 색채에 관한 자료를 전문잡지, 관련 서적,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한다. 2차적으로는 국제가구박람회를 참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대면 조사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기간은 한국국제가구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으로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KINTEX) 전시장에서 실시했으며, 대상자는 남녀 성별 구분 없이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으로 총 100명이다.

2. 가정용 가구의 색채에 관한 설문 조사

2.1. 가정용 가구의 범위 및 설문지 내용

가정용 가구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로 그 종류에는 침실에서 사용하는 침대, 장롱, 협탁, 화장대를 비롯하여 거실의 소파, 거실장, 차탁자,

가구와 색채관계 연구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대를 체크하십시오.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3. 가정에서 색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가구 ②가전제품 ③바닥재 ④벽지 ⑤커튼

4. 색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용 가구는 무엇입니까?
①소파 ②차탁자 ③거실장 ④침대 ⑤장롱 ⑥식탁 ⑦의자

5. 가구의 색채 중 선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①목재 그대로의 색 ②무채색(흰색, 회색, 검정색) ③유채색(빨강, 노랑, 파랑 등)

6. 가정용 가구로 선호하는 목재색은 무엇입니까?

①미송 ②은행나무 ③참죽나무 ④체리 ⑤호두나무 ⑥장미목

7. 가구에 칼라도장을 한다면, 어떤 색상을 선호하십니까?
①흰색 ②검정 ③회색 ④연두 ⑤파랑
⑥빨강 ⑦노랑 ⑧삼차색(중간색) ⑨기타( )

8. 가구의 색채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많은 영향을 미침 ②영향을 미침 ③보통
④영향을 미치지 않음 ⑤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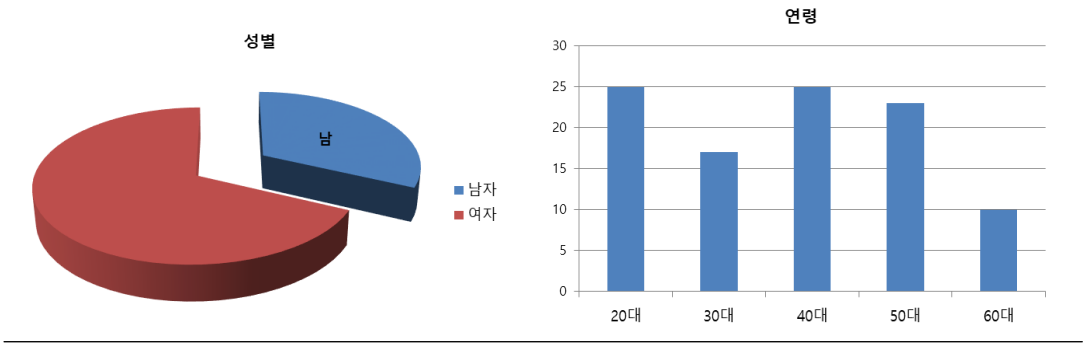
Fig. 1. Questionnaire about Home Furniture Colors.

책장이 있으며, 부엌의 식탁 그리고 학생방이나 식탁에 사용되는 의자 등이다. 설문지(Fig. 1)의 문항은 총 8개이며, 1과 2번은 성별과 연령을 묻는 내용이다. 3번과 4번은 가정에서 색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아보는 질문이며, 5~7번은 가구의 선호하는 색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8번은 가구의 색채가 우리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2.2. 설문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

설문대상자의 성별은 32명이 남성이며, 68명이 여성이었다. 조사 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였으나, 가구를 구매하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설문대상자가 여성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와 40대가 25명으로 같았으며, 다음으로는 50대가 23명이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20~30대보다 40~50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Table 1).

Table 1. Sex and Age of Particip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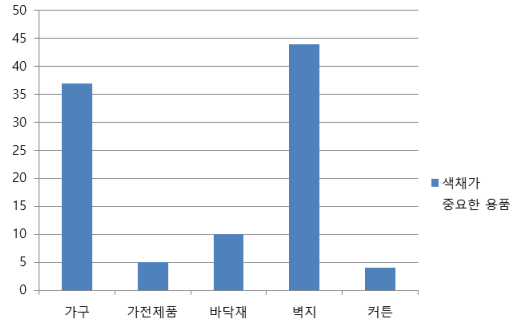


Fig. 2. Where Color is the Most Important in 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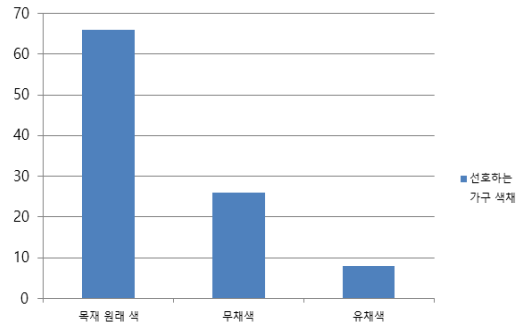


Fig. 3. The Home Furniture Which Color Has Big Impact on.

2.3. 가정에서 색채가 가장 중요한 것

가정에서 색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이 질문은 가구 색채의 비중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100명 중에 44명이 벽지라고 답했으며, 두 번째로는 37명이 응답한 가구가 차지했다. 이것은 가장 넓은 벽면에 발라지는 벽지 다음으로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Fig. 2).

2.4. 가정용 가구로 선호하는 색채

가정용 가구로 선호하는 색채를 크게 나무의 결과 색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과 무채색 그리고 유채색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것은 소비자가 가구의 색채로 원목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컬러도장을 좋아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재료 선택 및 마감처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66명이 목재 그대로의 색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무채색으로 26표를 얻었다. 즉 무채색과 유채색을 합하더라도 34표 밖에 안 되므로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연그대로의 나무색을 선호하는 것이다(Fig. 3).

2.5. 색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용 가구

가정용 가구 중에서 색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의 응답으로는 소파가 40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20표를 얻은 거실장으로 나타났다. 두 품목 모두 거실에서 사용하는 가구로 가정의 공간 중 거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이나 사용빈도수가 다른 공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소파나 거실장의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색상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Fig. 4).

2.6. 가정용 가구로 선호하는 목재 색

목재로 된 가정용 가구를 구매한다면 어떠한 목재 색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100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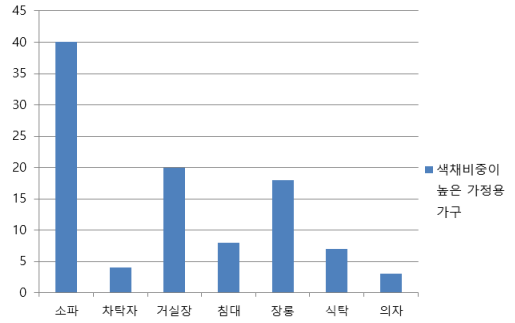


Fig. 4. The Preferred Colors as Home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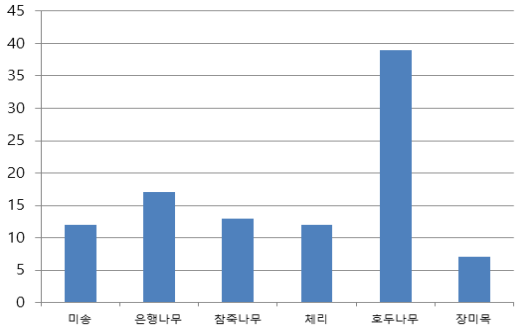


Fig. 5. The Preferred Wood Colors as Home Furniture.

39표를 얻은 호두나무가 1위를 얻었으며, 다음으로는 17표를 얻은 은행나무이다. 호두나무는 갈색톤으로 나무 중에서 어두운 편에 속하는 반면 은행나무는 밝은 편에 속한다(Fig. 5).

2.7. 가구의 색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가정용 가구의 색채가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질문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수는 55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33명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여 총 88명이 가구의 색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Fig. 6).

2.8. 가정용 가구에 도장 시 선호하는 색상

가정용 가구를 컬러도장 한다면 어떠한 색상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31명이 흰색을 꼽았으며, 두 번째로는 20명이 선택한 삼차색이 차지했다. 즉 절반 이상이 원색보다는 흰색이나 중간색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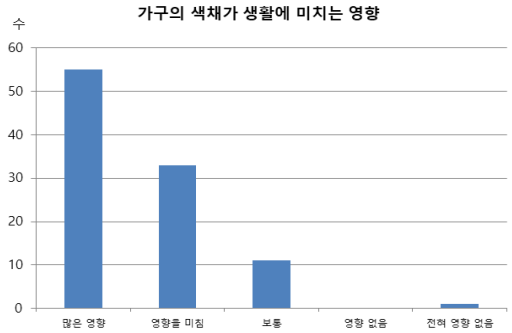


Fig. 6. The Preferred Colors When People Paint Home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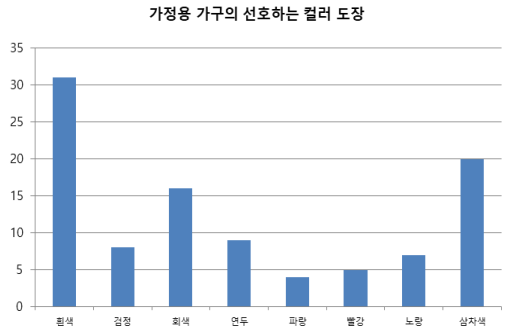


Fig. 7. The Effects of Home Furniture Colors on Life.

튀지 않는 무난한 색상을 선호하고 있다(Fig. 7).

3. 성별과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 현상

3.1. 가정에서 색채비중이 가장 큰 제품(성별)

성별로 볼 때 남성 32명 중 17명(53%)이 선택한 가구가 가정에서 색채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 68명 중 34명(50%)이 벽지를 뽑아 1, 2위가 다르게 나타났다(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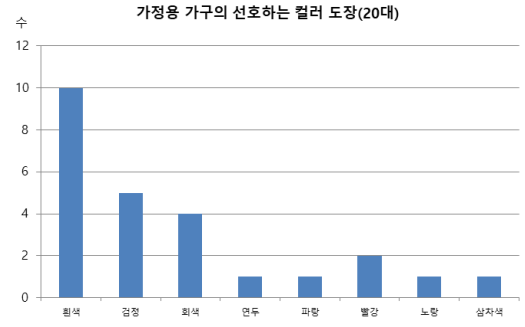
3.2. 색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용 가구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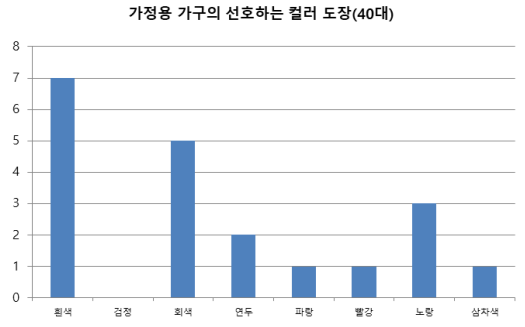
남성 중 12명(37%)이 선정한 소파가 가정용 가구 중 색채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여성도 같은 결과로 28명(41%)이 선택했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장롱을 선택했으나 여성은 거실장을 꼽아

Table 2. Wood Colors Preferred as Home Furniture by Age (단위 : %)

	미송	은행나무	참죽나무	체리	호두나무	장미목
20~30대(42명)	15	19	4	7	40	15
	34		11		55	
40~50대(48명)	11	15	22	15	35	2
	26		37		37	

Table 3. The Preferred Colors When People Paint Home Furniture (20's and 4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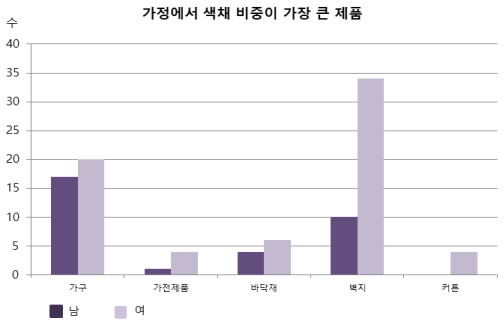


Fig. 8. The Home Supplies Which Color Is Put the Most Importance on By Sex.

2위와 3위가 서로 바뀐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아마도 거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여성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3. 가정용 가구로 선호하는 목재 색(연령별)

목재 가정용 가구 중 20대와 30대가 1위로 선정한 것은 호두나무로 40대와 50대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2위에서는 결과가 엇갈리는데 젊은 층이 은행나무를 뽑은 반면에 중년층은 참죽나무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20~30대는 호두나무와 장미나무와 같이 어두운 목재 색을 1위로 꼽았고, 미송과 은행나무처럼 밝은 톤을 2위로 선호하여 밝거나 어두운 양극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40~50대는 어두운 나무와 참죽과 체리처럼 중간밝기의 목재가 37%로 동률을 기록하였으며, 밝은 목재도 26%를 차지해 분포가 고르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Table 2).

3.4. 가정용 가구에 컬러도장 시 선호하는 색(연령별)

25표로 20대와 40대가 공동 1위를 차지하여 두 그룹의 성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정용 가구에 컬러 도장을 한다면 어떤 색을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에 20대는 10명이 흰색을 선호했으며, 두 번째로는 5표를 얻은 검정색이다. 반면에 40대는 흰색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6명이 뽑은 삼차색이며, 20대에서 2위를 한 검정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다(Table 3).

4.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을 방문한 관람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여 소비자는 가정용 가구의 색채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지의 문항은 총 8개로 가정용 가구의 색채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 색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벽지이며, 두 번째는 가구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구를 1위로 뽑았으나, 여성은 벽지를 뽑아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둘째, 가정용 가구 중에서 색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소파이며, 2위는 거실장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1위는 소파로 동일하나 2위에는 남성이 장롱 그리고 여성은 거실장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거실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부피감은 작지만 거실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남성은 단순한 부피만으로 장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정용 가구로 선호하는 색채는 목재 그대로의 색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무채색이다.

넷째, 목재로 된 가정용 가구를 구매한다면 호두나무 색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는 은행나무이다.

다섯째, 가정용 가구를 컬러도장 시 흰색을 가장 선호했으며, 두 번째로는 삼차색이 차지했다.

여섯째, 가정용 가구의 색채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88%가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구의 색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색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나무의 자연스러운 느낌의 원목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가구업계에서는 가구 신제품 개발 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구마케팅 전략이 세워지길 바라며, 이후 가격과 디자인이 포함된 더 구체적인 가구 색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은배. 2012. 한국의 전통색, 안그라픽스, 389.

전현철. 1997. 주방가구 색채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7.

T. W. Whitfield & A. Wiltshire Color Psychology. 1990. A Critical Riview.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 385-411.